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9

## 등불을 밝힘

성경: 민 8:1-4, 출 27:20-21, 계 1:4, 4:5, 시 73:16-17

### I. 비록 민수기 8장에는 회막에 관한 많은 세부 항목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아론에게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라고 지시하셨다 — 민 8:1-4.

A. 민수기 7장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불을 밝히라고 지시하셨다. 민수기 8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는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전하여라. ... ‘네가 등잔들을 올려놓을 때, 등잔 일곱 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다.

1. 일곱 등잔은 일곱 영을 상징하는데(계 4:5), 이 일곱 등잔은 등잔대 앞쪽으로 성막의 중심부를 향하여 빛을 비추었다. 그래서 등잔의 빛은 봉사와 움직임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비추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인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2. 등불을 밝히는 유일한 목적은 제물을 바치고 싸우고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다. 제물을 바치고 싸우고 움직이는 것은 모두 빛을 필요로 한다.

B. 빛의 비춤이 없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민수기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자마자 즉시 등불을 밝히어 빛을 비추게 하였다.

C. 하나님의 백성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빛을 비추실 것이고 그들은 빛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야만 싸우고 행하고 봉사할 수 있다 — 비교 롬 13:12, 14.

### II. 등잔대의 빛은 제사장들의 봉사의 힘에 근거한다.

A. 사무엘기상에서 하나님의 등잔은 곧 꺼지려고 했는데,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약하고 하락했기 때문이다 — 삼상 3:3.

B. 우리가 제사장으로서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여 향을 피우고 등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빛은 밝을 수 없다 — 출 25:37, 27:20-21, 30:7-8, 행 6:4, 고전 14:24-25.

C. 민수기 7장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8장은 빛을 위해 등잔을 밝히는 것에 관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한다 — 민 7:89-8:3.

## 민수기

### 메시지 9 (계속)

1. 이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분의 백성이 빛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했던 제사장 엘리의 시대 동안에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들이 곧 꺼지려고 했다 — 삼상 3:1-3, 비교 시 119:105, 130.
2.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에만 빛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밝게 빛날 수 있다.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등잔대의 빛으로 인하여 봉사하며 움직일 수 있었다 — 비교 말 2:7.
3. 더욱이 일곱 등잔이 같은 방향으로 빛을 내는 것은 몸 안에서 각 사람이 구별되는 사역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방향은 동일하고 그들의 사역들은 여전히 한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골 4:17, 담후 4:5, 행 20:24.
4. 예를 들어,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역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역이 있었으며,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역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향했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했다. 그들의 빛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빛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빛났다. 따라서 그들의 사역들은 하나였다.

Ⅲ.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 열매를 찢어서 짜낸 순수한 기름을 가져다가 불을 밝히게 하되, 등잔이 항상 빛을 내게 하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안의 증거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이다.” — 출 27:20-21.

- A. 올리브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비교 롬 11:17, 24) 올리브 열매를 찢어서 짜낸 기름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 산출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한다 — 비교 요 1:14, 고전 15:45하.
- B. ‘등잔이 항상 빛을 내게 하여라.’라는 말씀은 직역하면 ‘등잔의 빛이 항상 올라가게 하여라.’를 의미한다.
1.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지만(출 25:31) 빛을 내기 위해 타는 심지는 식물의 생명에 속한 것이다. 심지가 타면서 빛을 내려면 기름으로 적셔져야 했다.
  2. 심지는 그리스도의 높여진 인성을 상징하며, 이 심지는 신성한 기름으로 불타서 신성한 빛을 발한다.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9 (계속)

- C. 회막 곧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그분의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곳(레 1:1)인 성막은 교회 집회를 보여 주는 예표이다.
1. 그러므로 예표에서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은 합당한 집회 방식을 보여 준다. 교회 집회 안에서 실행하는 모든 것은 기도든 찬송이든 찬양이든 신언이든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소(sanctuary) 안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이럴 때 빛이 어둠을 삼킬 것이다 — 비교 요 1:5, 빌 2:15-16상, 엡 5:8-9.
  2. ‘증거 앞’은 ‘케 안에 있는 율법 앞’을 의미하는데, 이 케는 휘장 뒤에 있었다.
    - a.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는 지성소 안에 있지 않고 성소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로 기대하며 성소 안에 모인다.
    - b. 등잔에서 나온 빛은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여러 항목의 기구들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볼 수 있게 하며, 또한 지성소 안으로 곧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깊이 안으로 인도하는 길을 볼 수 있게 한다 — 비교 고전 2:9-10.
- D. 등잔의 불을 밝히는 거룩한 임무는 범속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 곧 제사장들의 봉사였다.
1. 성경 전체에 따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더욱이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했는데(출 28:2),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 체계가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2. 성소 안에서 등잔의 불을 밝히는 일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의 봉사를 필요로 한다 — 비교 벧전 2:5, 9, 계 1:6.
- E. 성소 안에 있는 빛은 자연의 빛도 아니었고 인공의 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금등잔대, 즉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에서 나온 빛이었다.
- F. 교회 집회에서 참되게 등잔의 불을 밝히는 체험을 하기 위해,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등잔대이신 그리스도와, 금인 신성한 본성과, 심지인 그리스도의 높여진 인성과, 그리스도께서 거치신 과정의 모든 단계를 나타내는 기름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하며, 제사장인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제사장의 의복인 그리스도의 표현을 옷으로 입어야 한다.

## 민수기

### 메시지 9 (계속)

- G.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관리해야 했다.
1.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는 낮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현시대는 낮이 아니라 밤이다.
  2. 따라서 우리에게는 날이 밝을 때까지 밤인 이 시대에 밝게 빛나는 빛이 필요하다 — 비교 룬 13:12, 벧후 1:19.

#### IV. 금등잔대의 일곱 등잔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는 일곱 등불이다 — 계 1:4, 4:5.

- A. 우주에서 하나님은 행정의 중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심은 바로 그분의 보좌이다.
- B.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로부터 행정을 수행하시고 움직이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정책을 집행하고 계신다.
- C.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는 일곱 등불은 일곱 등잔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행정과 경륜과 움직임에 관련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 V. 하나님의 행정과 경륜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금등잔대의 빛나고 비추는 일곱 등잔에서 나오는 빛을 가져야 한다.

- A. 자연의 빛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행정과 영원한 목적을 알도록 돕지 못한다 — 계 21:23, 25, 22:5상.
- B. 등잔대의 빛은 성소 안에 있는 빛인데, 성소는 교회를 상징한다.
- C. 일단 우리가 교회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빛 비춤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우리 앞에 놓인 여정을 가도록 우리가 어떤 길을 취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 D. 하나님의 성소(sanctuary) 안에서, 곧 우리의 영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얻는다 — 시 73:16-17.

#### VI. 요한계시록 4장에 따르면, 불타는 일곱 등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행정의 움직임에 있다.

- A. 그리스도는 보좌 앞에 있는 불타는 일곱 영에 의해,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그분의 임무를 수행하심으로 주권적으로 세계정세를 다스리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행 5:31, 비교 17:26-27, 요 17:2, 대하 16:9.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9 (계속)

- B. 불타는 일곱 영의 불길은 교회를 심판하고 순수하게 하고 정련하여 금등잔대들을 산출한다.
- C. 타오르는 등불의 태움은 비추고 태우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 일어나 행동을 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단 11:32하.